

2019-09-17 화 지공여행 13차 인천 삼산체육관

용이 만들어준 맛있는 오리고기로 지평막걸리 한병을 맛있게 마시고 출발

7호선 삼산체육관에서 내려 상동호수공원에 갔다. 반가운 암벽등반을 만나 도전하며 인증샷

호수를 가로지르는 나무다리에서 엄청난 물고기들을 보았다.

먹이를 주지 마라는 안내문이 있지만 과자를 주는 사람들 곁으로 엄청 모인 물고기들.

먹고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구나

길건너 만화박물관에 가서 기획전을 관람하고 한옥체험관을 구경하며

용과 서민안전대출에 대해 상의하는 통화를 하며 아인스월드로 갔다.

뒷편 굴포천을 따라 걸어 한물간 아인스월드를 넘겨보며 옛날 김영숙이 운영하던 커피집을 떠올렸다.

중간중간 캠핑카가 많이 있고 텐트도 많아 야영객을 받는 것 같구나. 도심 중앙에서 캠핑이 가능한가?

삼산체육관 정문을 둘러보며 오래전 랩배틀 우승자 우원재의 슬프게 보이던 눈을 떠올렸다.

낮술이 깨면서 피곤이 몰려온다.

오늘밤도 일찍 잘 수 있겠구나.

